현불 논단

코로나19와 저널리즘



이화행
동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다매체 경쟁 환경 노출
허위 · 거짓 정보의 범람
과학적 사실 입각 보도
전문성 높여 신뢰 높여야

사회적 영향 비판 분석과
사실 · 의견들 철저히 분리
코로나 불확실성 확대상황
신뢰 재창출 모습 필요해

원시인들은 주변 환경을 직접 관찰하는 일을 먹거리를 찾는 행위만큼 중요시 하였다. 원시인에게 환경 관찰, 즉 정보 추구 행위는 신체적 위협 요인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 조치였기 때문이다. 초연결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직접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각종 미디어가 거의 무제한의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미디어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가? 우리는 미디어를 얼마만큼 신뢰해도 되는가?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이 되고 있다. 대륙 및 국가별 감염자와 사망자 통계 수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준다. 언론은 뉴스가치가 높은 코로나 사태를 연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언론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SNS,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개인미디어로 인하여 언론은 독점적 정보생산자의 지위를 누리던 과거와는 달리 다매체 간 경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은 뉴스이용자들이 이들 신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손쉽게 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언론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산물인 뉴스콘텐츠의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곧 저널리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인데, 이것을 소위 저널리즘의 전문직주의라고 한다. 언론사 내에 건강이슈를 전담하는 의학부를 두거나, 의학을 전공한 의학전문기자를 두는 등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는 바람직한 건강보도를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보게 한다. 첫째, 언론은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질병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를 촉진시켜야 한다. 지금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광우병, 메르스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건강 이슈나 복잡한 질병의 경우 언론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많은 언론의 주장이 학술적으로 허위로 밝혀진 지난 광우병 사태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언론은 일반시민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응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아무리 전문성을 갖춘 내용이라 하더라도 질병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없다면 안 된다. 전달하는 정보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되 동시에 실용적이고 함축적이어서 일반인이 응용하기 쉬어야 한다.

셋째, 이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건강 문제와 관련한 사회 규범을 바꿀 수 있는 인식, 믿음 체계,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논쟁이 되는 건강 이슈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넷째, 언론은 관련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사실과 의견을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감염자 확산 상황을 보도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추측성 주장과 해설을 뒤섞어서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거나 적대적인 국가의 전염 상황에 대한 보도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 대응 정책과 같은 건강 이슈가 정치 분야와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사실과 의견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객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삶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코로나 확산의 속도나 범위가 드라마틱해지면 할수록 팬데믹 관련 가짜 정보와 음모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코로나 국면에서 신뢰를 재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뇌세포를 쉬게 하라

우울한 감정에 사로 잡힌 자, 회한으로 한숨 짓는 자, 분노에 차 있는 자, 질투심에 불타는 자, 명랑하게 흥얼거리는 자, 배타적 감정을 품은 자, 이렇게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여섯 사람이 분비한 땀을 채취해 정신과 전문의가 분석한다면, 각각 사람이 품은 감정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수 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도 혈액이 가장 왕성히 순환하는 곳입니다. 혈액이 청결하고 신선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과 동시에 피로 물질을 깨끗이 씻어 없애 준다면 아무리 두뇌를 활동시키더라도 뇌수는 결코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활력을 갖고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혈액 속에 공포와 번뇌 등으로 생성된 독소가 다분히 포함돼 있다면 그 독즙으로 뇌수 세포는 금방 피로를 느끼고 지치게 됩니다. 영양분 대신 독소를 공급 받게 된다면 재능을 맘껏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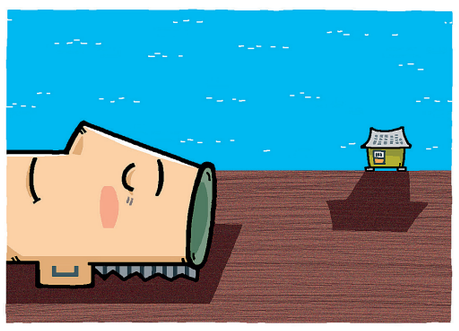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정서 겪는 정신적 갈등은 가족들 건강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라도 그 곳에 분란이 생기면 정신병이나 히스테리 환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생성된 혈액이 항상 뇌수세포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소는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생성되는 독소보다 훨씬 더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때문에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며, 머리는 항상 무겁고 마음은 초조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정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여기서 음주와 도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이 싹트죠. 결국 그 신경 세포는 여러 가지 독소로 파괴돼 불면증, 신경쇠약, 히스테리를 가져옵니다. 나아가서는 회복 불능의 광기까지 유발합니다.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도 이런 상황에서 도박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번민한다는 것은 마치 천리를 달리는 준마가 자기 등에 앉은 한 마리의 파리를 보고 이 파리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과 같죠. 아무리 훌륭한 준마라도 한 마리 파리를 쫓는데 갈팡질팡 한다면 결코 경마장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 분노, 질투심, 절망 등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뇌세포를 편히 쉬게 하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편안하면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사찰 재정난, 국가 관심 필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4명이 늘어 92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좀처럼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찰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재정 타격이 심각해서다. 대책으로 교역직 스님들의 월보시금을 삭감하고 있지만, 재정난 해소되기는 어렵다.

조계사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운영재정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봉은사도 예년 대비 10% 수준으로 재정이 감소했다. 주요 교구본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문화재관람료를 통해 사찰 내 문화유산들을 유지 · 보존하고 있지만, 참배객이 줄어 수입이 전무할 정도라고 한다. 이러다보니 문화재관람료 사찰들은 재정난과 함께 문화재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찰 재정난에 어려워진 것은 사찰들의 분담금을 통해 종단이 운영되는 종단도 마찬가지다. 조계종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의 월보시금 중 일부를 종단운영비로 회향하기로 했다.

전국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조계종은 세 차례에 걸쳐 지침을 내렸고, 일선 사찰들은 이에 따라 법회 중단과 행사 및 모임 취소 등을 일사분란하게 시행했다. 현재 한국종교에서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스님들이 상주하며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유지 ·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사찰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총선 후보, 문화재관람료 주목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 정당은 후보 공천을 마치고, 후보들은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4월 15일이면 국정을 책임질 국회의원 300석이 채워진다.

국회의원이 돌아봐야할 국가정책과 민생과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현안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불교계 현안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계절마다 산으로 몰려드는 등산객을 감안하면,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국민적인 현안이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항상 문화재관람료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해왔다. 이번 역시 각 정당과 후보캠프에 배포한 정책자료집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의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67년 공원법의 제정이다. 당시 정부는 불교계의 동의 없이 사찰 소유 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했다.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후 공원입장료와 병합했으나, 참여정부 당시 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불교계 입장은 명확하다.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가치와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찰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불교계는 피해자이면서도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해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사안을 살펴보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